

■ 괴운(機雲) 칼럼



익자 손자삼우(益者 損者三友)와 인생십적(人生十蹟)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아공파 36세)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친구(親舊)와 기적(奇蹟)에 관해 알아본다. 먼저 친구로 익자삼우(益者三友)와 손자삼우(損者三友)이다. 세계 갑부였던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Samuel Moor Walton)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크게 후회하였다고 한다. 내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를 얻는 일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렸다.

예로부터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5무(五無)를 들고 있다. 5무란 무정(武情), 무례(無禮), 무식(無識), 무도(無道), 무능(無能)한 인간을 말한다. 정이 없는 무정인(無情人), 예의가 없는 무례인(無禮人), 학문 수준이 낮아 말이 통하지 않는 무식인(無識人), 가는 길도 모르고 도리가 없는 무도인(無道人), 능력과 적극성이 없는 무능인(無能人)을 말한다. 그러면 참된 친구란 누구인가? 논어에 공자님이 제시한 유익한 세 친구인 익자삼우(益者三友)는 (1) 정직한 사람, (2) 신의가 있는 사람, (3) 견문이 많은 사람을 들고 있다. 반면에 해로운 세 친구인 손자삼우(損者三友)는 (1) 아첨하는 사람, (2) 쯤대 없는 사람, (3) 겉으로 친한척하면서 성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익자삼우만 찾지 말고, 내가 먼저 손자삼우가 되지 말고 익자삼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인생십적(人生十蹟)이다. 예부터 인생에는 열 가지 기적(奇蹟)이 있고 이를 일러 인생 10적이라 부르고 있다. (1) 일적(一蹟)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2) 이적(二蹟)은 좋은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이다. (3) 삼적(三蹟)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이

요, (4) 사적(四蹟)은 마음을 모두 주고 싶은 진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5) 오적(五蹟)은 효성스런 자식을 얻는 것이요, (6) 육적(六蹟)은 존경스런 스승을 만나는 것이다. (7) 칠적(七蹟)은 비명횡사 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는 것이고, (8) 팔적(八蹟)은 평생 재물에 궁하지 않을 만큼 갖는 것이다. (9) 구적(九蹟)은 인연과 사별할 때 임종을 지키는 것이요, (10) 십적(十蹟)은 죽음에 이르러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생 10적을 보면서 법정(法頂) 스님의 인생편지 '이렇게 살아라'를 알아본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늙는 괴로움도 젊음을 좋아한 데서 오고, 병의 괴로움도 건강을 좋아하는 데서 오며, 죽을 또한 삶을 좋아하며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온다. 사랑의 아픔도 사랑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 데서 온다.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 온다. 좋고 싫은 것만 없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른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다. 사랑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람이 오면 사랑을 하고, 마음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이것이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는" 걸림 없는 삶이다. 우리 안동 권문님들도 항상 덕을 베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社告

제34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 체육대회 안내

안동권문(權門)의 성전(盛典)이요 자랑인 제34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가 영주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27개 지역 및 해외 1개(일본) 청·장년회가 참여하는 본 대회에 전국 족친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우리 권문의 한마음 일치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대회 개요-

- 일시: 2026년 4월 25일(토) 오전 10시~16시
- 장소: 영주 선비세상
- 주최: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회
- 주관: 안동권씨 영주청년회
- 후원: 안동권씨 대종회, 영주중친회, 장년회, 부녀회
- 내용: 개회식, 종목별 경기, 공연 및 장기자랑 등

안동권씨 대종회

■ 권순공의 온고지신溫故知新

〈육신전(六臣傳)〉을 보며 '사육신(死六臣)'을 생각한다



권순공(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요즘 단종(端宗)의 영월유배와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계유정란(癸酉靖亂)'이나 '사육신(死六臣)'의 처형을 다룬 이제까지 사극의 문법과는 달리 새로운 스토리텔링, 곧 단종의 시신을 몰래 묻어주었던 영월 아전 엄흥도(嚴興道)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다룬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상 가장 처절하고 극적인 스토리는 단종복위를 꾀했던 사육신의 처형일 것이다. (영화에도 처음 그 장면이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죽는 선비가 왜 6명뿐인가? 사실은 사육신 외에도 성승(성삼문의 부친), 박종립(박팽년의 부친), 김문기, 권자신, 박쟁 등 11명 정도의 선비가 더 죽음을 당했다고 전모를 밝힌 공식 명단은 전하지만, 가족과 측근까지 치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다. 그것은 생육신인 남효온(南孝溫, 1454~1429)이 〈육신전(六臣傳)〉을 지어 거기에 익히 알려진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등 6명만을 넣었기 때문이다.

! 세조의 왕위탈환 이후 최초의 기록

〈육신전〉은 세조가 왕위에 올라 단종복위를 꾀했던 사육신을 처형한 지 23년 뒤인 1479년(성종 10)에야 글로 씌어졌다. 그러나 이 글이 나온 뒤에도 워낙 위험한 내용이라 쉬쉬하면서 일종의 비기(秘記)처럼 은밀하게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 100년이나 지난 뒤 경연(經筵)에서 선조는 〈육신전〉을 가리켜 "직접 그 글을 보니 흠지 않은데도 사문(秘文)이라 하여 숨겨놓았다. 소릉은 곧 단종의 모친인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인데,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자 그 어머니도 왕후가 아니라 하여 소릉이 파헤쳐져 문종(文宗)이 문헌 현릉(顯陵)에도 같이 묻히지 못하고 신주가 종묘에서 내쳐지는 수모를 당했다. 남효온은 현덕왕후가 단종의 모친이 아니라 문종의 왕비로서 당연히 같이 묻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성종은 세조의 손자니 해결

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묘갈명(墓碣銘)〉에 의하면 "〈육신전〉을 지으려 하니 제자와 벗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 말렸다. 그러자 공이 웃으며 '내가 어찌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충신의 이름이 사라지도록 하겠는가?' "고 전한다. 신흠(申訢)은 "우리나라의 육신은 실로 무왕(武王)의 백이(伯夷)와 같은 자들인데 끝내 살육되고 자손까지 함께 처형되었다...단지 남효온이 〈육신전〉을 지어 실낱같이 의기를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육신전〉의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1691년(숙종 17) 12월에 사육신을 국가에서 공인, 복권시키고 사당을 만들어 제사지내도록 허락했으며, 1498년(숙종 24)에는 단종이 조선 6대 왕으로 복위되기에 이른 것이다.

! "충분(忠憤)은 해를 꿰뚫고, 의기(義氣)는 추상보다 능률하다"

그러면 〈육신전〉을 통해 죽어간 육신의 행상을 보자. 박팽년은 형조참판이 되어 성삼문 등과 거사를 의논하던 중 마침 명나라 사신이 창덕궁에서 연회를 베풀다 하여 그 날을 거사일로 잡았다. 성승 및 유응부를 별운검(別雲劍)으로 세위 연회를 베푸는 날에 거사하고, 성문을 닫아 측근을 제거하고 상왕을 다시 세우고자 했다. 하지만 그날 세조가 운검을 그만두도록 명했고 세자도 따라 나오지 않았다. 박팽년과 성삼문이 거사를 마무리 하자 유응부는 지금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니 놓쳐서는 안 된다 했지만 모두 완강히 반대하여 후일로 미루었다. 거사에 참여했던 김질이 일이 실패한 것을 알고 장인인 정창손과 모의하고 예결(諭闕)하여 변고를 아뢰니, 세조가 특별히 김질과 정창손을 용서하고 박팽년을 잡아들여 자기 편에 서도록 타일렀지만, 세조를 '나리'라 부르며, '상왕의 신하'라며 세조의 신하임을 거부했다.

세조가 국문하며 왜 나를 배반하느냐 하자, 성삼문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천하에 그 누가 자기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까. 제 마음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 거늘 어찌 배반이라 하십니까. 나리는 평소 에 걸핏하면 주공(周公)을 끌어냈는데 주공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대들었다. 또한 녹(祿)을 먹었지 않았느냐 하자 "나리의 녹을 먹지 않았으니, 만약 먹지 못했거든 저의 가산(家産)을 몰수하여 헤아려 보십시오."하여 과연 집에 가 보니 세조가 왕이 된 후 봉록은 한 방에 그대로 쌓아두었다. 이는 하위지도 마찬가지였다. 세조가 매우 노하여 무사로 하여금 쇠를 달구어 그의 다리를 꿸고 팔을 자르도록 했으나, 안색도 변



하지 않고 천천히 말하기를 "나리의 형벌이 혹독하기도 합니다." 했다.

유성원은 성삼문이 잡혀갈 때 마침 성균관에 있었는데, 제생(諸生)들이 성삼문의 일을 알리자, 즉시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더불어 술을 따라 이별주로 마시고, 사랑에 올라가 관복도 벗지 않은 채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유일한 무인인 유응부는 국문당할 때, 성삼문 등을 돌아보며 "사람들이 이르기를 '서생(書生)과는 함께 모의할 것이 못 된다.'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지난번 사신을 청하여 연회하던 날에 내가 칼을 시험하려 했으나, 그대들이 굳이 저지하여 오늘의 화를 불러들였다."하고, 세조에게 말하기를 "만약 정상 밖의 일을 듣고자 한다면, 저 더벅머리 유자(儒者)들에게 물어보시오." 하고는 입을 닫고 대답하지 않았다. 세조가 더욱 노하여 불에 달군 쇠를 배 아래에 놓아두기를 명하니, 기름과 불이 함께 지글거렸으나 낮빛이 변하지 않았다. 천천히 쇠가 식기를 기다렸다가 쇠를 집어 땅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 오라." 하고, 끝내 죄상을 인정하지 않고 죽었다.

사육신은 죽어가면서도 하나같이 당당하게 의기와 충혼을 내세웠다. 아, 육신이어, 그 의기와 충혼을 생각하노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서울지역중친회 유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사릉(思陵)은 조선왕조 제6대 단종대왕의 부인 정순왕후의 능으로서 요즈음 '왕과 사는 남자' 영화상영 후로 참배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서 깊은 곳이기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 ♣ 일 시: 2026년 4월 12일 일요일 10시
- ♣ 장 소: 경기도 남양주시사릉
- ♣ 교 통: 전철 경춘선 금곡역 하차 30분

♣연락처: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6년 4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중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60차 정기산행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60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2026년 4월 19일(일) 10시(시간 엄수)
- ♣ 집합장소: 공항철도 인천공항역 2층 용유도행 버스
- ♣ 산 행 지: 을왕리 해수욕장
- ♣ 준 비 물: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 장비

- 회 장 권정찬: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010-2240-4242

2026년 4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